

2005 세계 어린이책 축제

엄마는 독서 영재수업에 집중,
아이는 그림책 놀이에 흠뻑



▲ 2005 세계 어린이 책 축제에서는 독서교육 도우미 푸름이 아빠의 강연 외에도 해외에서 초청돼 온 작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사진은 《타시의 신기한 모험》을 쓴 호주 작가 애나 피엔버그(가운데)와 그림을 그린 킨 캄블(오른쪽) 씨.

▼ 전통있는 호주 어린이책과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하는 캐나다 어린이 출판물 약 4,000여 점을 전시한 풍경.



아이의 독서시간에 정한 놀이, 스किन심을 비롯한 부모의 능동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5일 2005 세계 어린이책 축제에서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는 주제로 강연을 가진 최희수 씨는 독서야말로 부모와 아이의 능동적 소통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일련의 소통과정을 통해 아이를 영재로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강연은 특히 반향을 맞아 2005 세계 어린이책 축제에 참가한 다수 학부모들의 관심을 폭넓게 받았다.

최씨의 독서교육 기본골격은 아이가 독서행위를 놀이로 느끼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책을 읽은 후 “책에서 뭐라고 했어?”,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어보는 중점의 방법들은 효과적인 교육법이 아니다. 같은 의미라도 “강연 좀 들려주세요”란 질문으로 아이의 독서감상을 흥미롭게 유도하는 기술을 부모들은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 최씨는 정관과 공감으로 이루어진 독서 과정이 결과적으로 아이의 지성과 감성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연이야말로 아이의 정서를 제대로 길러주는 인큐베이터라고 말하면서 서울에서 과주로 이시해 아이를 키우게 된 시연도 소개했다.

행사 기간 동안 책과 환경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법을 알린 최씨는 ‘푸름이’를 IQ 141짜리 영재로 키우면서 (푸름이는 여섯 살에 CBS 영재학술원에서 IQ 141로 영재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양재교육진흥원이 제정된 때 대통령에게 독서 영재로 보고했다.) 독서교육 전도사로 인정받은 인물. 특히 눈술과 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창작업에 불탄 학부모들의 다양한 문의도 받고 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한 학부모는 “무료로 책도 보고 작가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며 “강연을 듣고 보니 당장 책을 놓고 아이와 놀아볼 방법을 연구해봐야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전 세계적으로 전통을 자랑하는 호주 어린이책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재기발랄함을 뽐내는 캐나다 어린이 출판물 4,000여 점(그림책, 소설, 논픽션북, 영어 리딩 프로그램, 원화 등)이 소개됐다. 또한 ‘그림책 원화 작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교실’, ‘별자리 교실’, 캐나다 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 프로그램이 준비돼 반향을 맞은 어린이들을 만났다.

특히 ‘그림책 원화 작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교실’에 초청된 호주작가 애나 피엔버그와 킨 캄블은 국내에서 《타시의 신기한 모험》(국민서관)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자신들의 책을 펼쳐놓고 내용의 일부를 직접 영어로 구연하고 구연 중 관련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해 아이들 신비로운 동화 세계로 안내했다. 또한 캐나다 대사관과 주한 호주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70여 개 해외출판사가 참여했고, 다수의 국내 출판사들이 협찬해 자신의 책을 함께 알리는 기회를 가진 채 성황리에 폐막했다. □

취재 김형연기자 | 사진 박신유 기자